

[제 2024-113호]

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	보 도 자 료		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총3쪽
배포일시	2024.11.02.	담당부서	영화
연락처	323-936-7141(x116) lila@kccla.org	담당자	Seonji Jang

LA한국문화원, AWFF와 손잡고 한국영화 <보통의 가족>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보여

- 11월 13일부터 컬버 극장서 한국영화 상영회 <Focus on Korea> 개최
- <서울의 봄>, <보통의 가족>, <대도시의 사랑법> 등 최신 개봉 한국영화 5편 상영



- ▶ 행사명 : 아시안 월드 영화제 <Focus on Korea>
- ▶ 기간 : 2024.11.13.(수) ~ 19(화)
- ▶ 장소 : The Culver Theater
- ▶ 주최/주관 : 주LA한국문화원, 아시안 월드 필름 페스티벌
- ▶ 행사문의 : 장선지 실무관, 323-936-7141(x116)/lila@kccla.org

LA 한국문화원(원장 정상원)은 11 월 13 일부터 21 일까지 개최되는 아시안 월드 영화제(Asian World Film Festival, AWFF)와 함께 한국영화를 집중 소개하는 <Focus on Korea>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 특히, 11 월 19 일에는 내년도 아카데미 영화제 한국영화 공식 출품작이자 배우 황정민, 정우성 등이 출연한 <서울의 봄>(2023, 감독 김성수)이 상영되며, 영화 상영후에는 김성수 감독이 직접 참석하여 관객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.

오는 11 월 13 일부터 21 일까지 컬버 극장에서 개최되는 영화제 기간동안 <Focus on Korea>는 한국영화 총 5 편을 소개하며, 지난 해 <콘크리트 유토피아>(2023, 감독 엄태화)에 이어 올해도 한국 영화가 아시안 월드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선정되었다.

올해 개막작은 배우 장동건, 설경구, 김희애가 출연한 <보통의 가족>(2024, 감독 허진호)으로 국내 개봉 전 토론토 국제 영화제(TIFF) 등 해외 유수의 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은 작품이다. 또한,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이었던 <한국이 싫어서>(2024, 감독 장건재), 2024 프랑스 메디치상 1 차 후보작으로 선정된 박상영 작가의 '대도시의 사랑법'을 원작으로 하는 <대도시의 사랑법>(2024, 감독 이언희), 영화진흥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오스카 출품작 <서울의 봄>(2023, 감독 김성수),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 소설 '살인자들'을 원작으로 하는 <더 킬러스>(2024, 감독 김종관, 노덕, 장항준, 이명세) 등 국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최신작품이 상영될 예정이다.

정상원 LA 한국문화원장은 “한국에서도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현지 관객들에게도 소개될 수 있어 기쁘다”며 “미 현지사회에서 한국영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응원이 다시 한 번 필요한 시점”이라고 전했다.

올해로 10 회를 맞이하는 아시안 월드 영화제는 지난 2015 년 미국 현지에 아시아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를 소개하고자 시작되었다. 이후, LA 한국문화원과 함께 대중, 언론 및 아카데미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한국 오스카 출품작 등 다양한 장르의 한국영화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.

한국영화 상영 프로그램 <Focus on Korea>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과 예매정보는 아시안 월드 영화제 홈페이지(www.asianworldfilmfest.org)에서 확인 가능하다. /끝/

(붙임 1) 아시안 월드 필름 페스티벌 <Focus on Korea> 포스터